

진북동~금암동 연결 금암교 개통

전주시 금암동과 진북동을 연결하는 금암교가 개설된 지 40년 만에 아름다운 아치형 교량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금암교 재가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금암교를 전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금암교는 총길이 27.5m, 폭 25.4m 규모의 전통 아치형 라멘 교량(상판과 교각부가 일체화된 교량)으로 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했다.

금암교가 전면 개통되면 진북동과 금암동을 오가는 차량의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돼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교량으로 재탄생한 금암교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건산천과 조화를 이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

전주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 사업 일환 아치형 라멘 교량으로 미관 개선·안전성 확보

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금암교를 재가설하게 된 이유는 지난 1977년 가설된 금암교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인근에서 환경정비가 추진되면서 생태하천 복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교량 재가설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 사업인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금암교 재가설공사를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시는 금암교 재가설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최소화와 시민생활 불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를 1·

2차로 나눠 반쪽씩 재가설 공사를 추진, 지난 7월 1차 부분개통에 이어 최근 2차 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자해 팔달로 복문교에서 건산천 북개점까지 이르는 총 길이 430m의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 생태로 복원하고, 교량 2개소 개설 및 생태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9월에 건산천 복개 주차장 철거 부지에 진북동과 금암동을 연결하는 태진교를 조성하는 등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또 내년 3월까지 호안 자연석 쌓기와 경관데크시설 설치, 경관조명 및 조경공사, 생태탐방로 시설 및 주변도로 정비 등 공사들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 쾌적한 수변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태하천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금암교가 금암동과 진북동 주민들의 주요 이동통로로 자리하고, 건산천이 복원되면 전주천은 물론 민경강까지 물결이 연결돼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생활 속 생태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청 출신 경무관 탄생할까

경찰청, 다음주내 인사 발표

33년만에 전북청 출신의 경무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다음주내에는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청은 1983년 송주원씨가 경무관에 승진된 이후 단 한명의 경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항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헛물을 들이킨 전북청은 올해 인사에서는 기대를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돌

고 있다.

경무관 승진의 유력 후보로는 2009년 총경으로 승진한 신일섭 전 북경청 생활안전과장과 2010년에 승진한 강황수 수사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직인물과 유기적인 소통과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의 인사 분위기가 지역 안배문제를 많이 고려하는 점에서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연 전북청 출신의 경무관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텃 빈 닭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가금류 이동이 중지된 29일 오후 경기 성남 모란시장 내 한 토종닭 업체의 닭장이 비어 있다.

이웃주민 칼로 찢은 70대 거거

정읍경찰서는 29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주민을 칼로 찢은 A씨(70, 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8일 정읍시 소재의 한 마을에서 발축량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을 25cm 칼로 왼쪽 가슴을 찢고 배를 벤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 붙잡아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원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열어 절취한 이모씨(21, 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덕진구 삼송길 소재 한 원룸 주차장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씨티100 오토바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특혜 논란’ 이견식 김제시장 선고 공판 내달 8일로 연기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견식 김제시장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9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숙고해서 내리기 위해 이견식 김제시장 사건 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여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겨울철 제설작업 준비 만전

장비 37대·인원 74명 관내 11개 노선에 배치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 한 발 빠른 제설대책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동안 효율적인 제설작업 등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와 인력 및 도로제설용역 계약으로 제설장비 37대, 동원 인원 74명을 관

내 11개 노선 526.8km에 배치했다.

또한,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2500t을 비롯해 소금 9000t, 모래 1500mm³, 친환경 제설재 8t을 비축해 놓았다.

특히 자체 제작한 적사함 600개를 도로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깨내기 편리하도록 11월말까지 가드레일 지주 상단에 고정시켜 배치할

계획이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김상범 소장은 “겨울철 적설 및 노면 결빙시 신속한 제설·결빙제거 작업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로순환을 강화하는 등 겨울철 국토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덕진경찰, 우수주차장 인증 합동진단 실시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물들의 주차장을 돌며 우수주차장 인증을 위한 합동진단을 시행했다.

우수 주차장 인증제는 주차장 시설 및 환경을 평가 후 범죄예방 환경이 좋은 주차장에 대해 경찰청에서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 활동은 생안·여경·강력계장, 범죄예방진단팀이 합동으로 1차적으로 선정된 18개소 주차장에 대해, 우수주차장 인증을 위한 감시, 접근 통제, 유지관리 등 총 90개 여거 항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였다.



덕진경찰서는 우수주차장 인증을 위한 합동 진단을 하고 있다.

박성구 경찰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해 우수주차장 인증제와 같은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

410대 대상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승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평화동과 전주대, 비전대 등 주요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시내버스 5개 회사 전체차량 410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안전상태 및 차량정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으로 ‘비스타가 즐거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매 분기별로 1회씩 점검반 2명씩 2개조를 편성해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비품관리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차량부식상태 등 10개 항목이다.

또한 업체별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차량내부 비치사항 위반 2건 △노선도 미부착 3건 △차량부식 및 찌그러짐 2건 △기타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을 조치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상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